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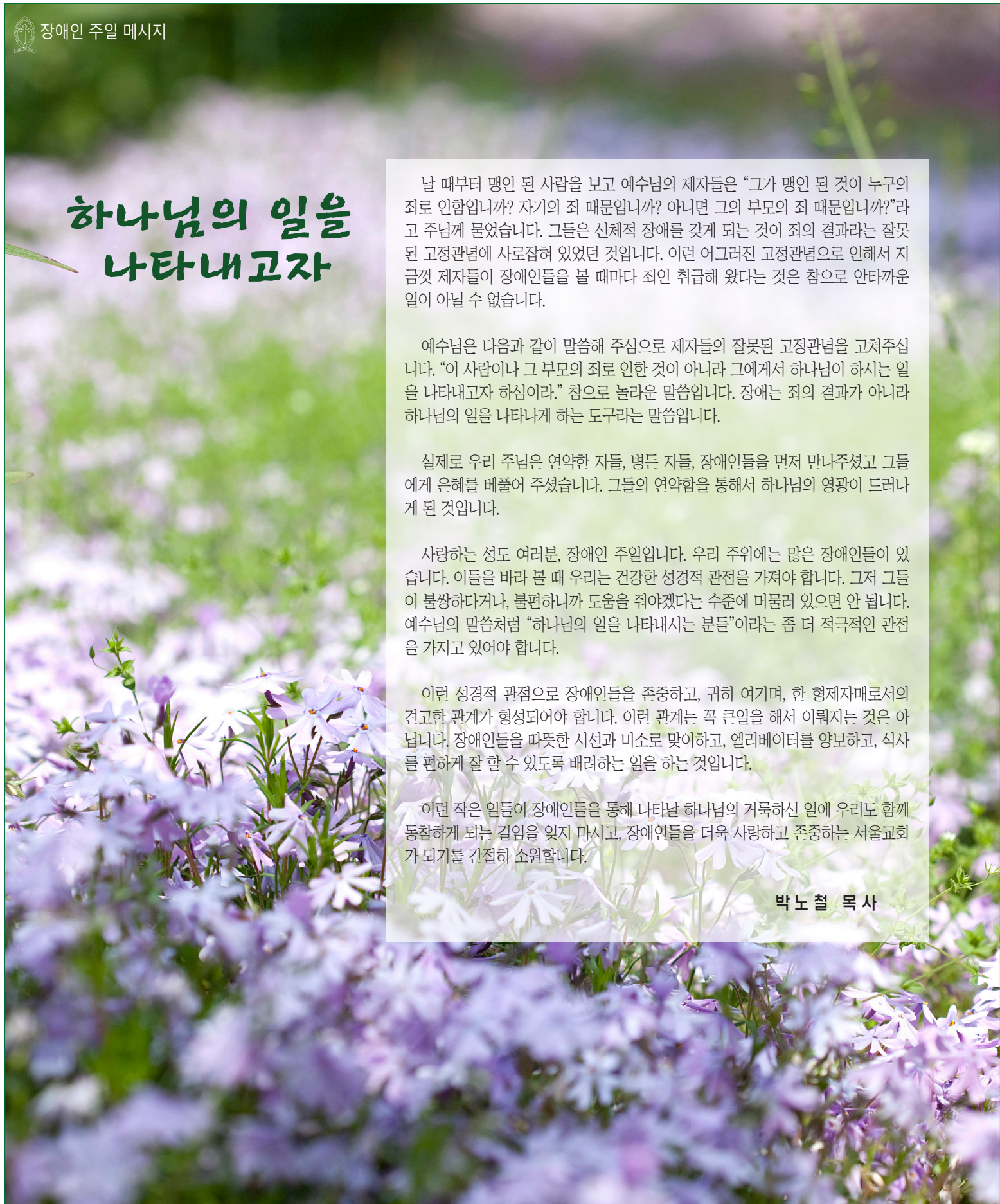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장애인 주일 메시지

##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맹인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그러진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지금껏 제자들이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죄인 취급해 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심으로 제자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장애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는 도구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인들을 먼저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 볼 때 우리는 건강한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그들이 불쌍하다거나, 불편하니까 도움을 줘야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분들”이라는 좀 더 적극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 관점으로 장애인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한 형제자매로서의 견고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꼭 큰일을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을 따뜻한 시선과 미소로 맞이하고, 엘리베이터를 양보하고, 식사를 편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장애인들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장애인들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 오늘은 장애인 주일

## 오늘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장애를 집안의 수치라는 생각 등으로 장애인을 격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차별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전에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장애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셨다.

서울교회도 교회회림과 함께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부'를 1992년 1월 첫주 30여명의 교인들이 모여 연 기도회가 장애인 부서의 시초다. 7명의 학생과 43명의 등록예정자들로 개교하였다. 가장 작은 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 받아 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도록 하자.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장애인주일을 맞아 사랑부(부장:박광옥 집사)와 예배다부(부장:강낙훈 집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사랑부는 김진경 선생, 신기원 선생의 지도로 벨 플레이트연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합창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등을 찬양하고, 예배다부는 조연서 선생의 지휘로 “새 힘 얻으리”, “온 맘 다해”를 수화로 찬양한다.

# 북핵폐기 1000만인 서명운동

## 오늘까지 / 2층, 3층, 8층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핵 폐기를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을 오늘 마감한다.

우리교회는 지난 주까지 1,220명이 서명, 기관에 제출 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국민적 합의는 필수이며 천만 명 서명의 힘은 북핵의 힘보다 클 것이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성도들은 교회 2층, 3층, 8층에 비치된 용지에 서명하기 바란다.

## 2016 방글라데시 비전트립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일시 | 2016. 8. 8 (월) ~ 8. 15 (월)  
 장소 | 방글라데시 다카  
 문의 | 지도 조원영 목사 010-6611-7252  
 단원 정처은 집사 010-3194-7270

**2016 BANGLADESH VISION TRIP**

- 1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1억명)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 2 2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전통을 지닌 방글라데시 기독교인(0.3%)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 3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든 일정 기부에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사적 건강 일정, 모든 사역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4 선교준비와 교육과정이 주님의 은혜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팀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 5 이번 vision trip을 통해서 귀한 열매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우소서.

밤에 황성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렇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나로 건너오서 우리를 도우라 하기를

# 항존직 선거

## 제15대 집사, 14대 권사 / 5월 15일(주) 공동의회

우리 교회 당회는 3월 9일 열린 정기당회에서 제 15대 집사 40명과 14대 권사 80명을 선출하는 항존직 선거를 오는 5월 15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합당한 이들이 선출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란다.

## 이종윤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 크리스찬의 재물관

(눅 12:16-21)

#### 1. 전제

크리스찬 재물관의 제1 전제는 “인간의 모든 소유는 인간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나”(고전 4:7)고 말씀한다.

크리스찬 재물관의 제2 전제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 11:36에 근거한 말씀이다.

크리스찬 재물관 제3 전제는 “인간은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다. 관리하는 청지기에게는 충성과 지혜와 근면이 요구된다. 이것은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에 근거한 말씀이다.

#### 2. 재물에 대한 일반적 이해

- (1) 재물은 가치 창조 요소 중 하나이다. 오늘날 가치 창조를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기술, 그리고 시간이다.
- (2) 돈은 인간 척도의 요소 중의 하나이다. 돈이 인간 척도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한 단면이다. 또한 인간이 돈을 만드는 반면 돈은 인간을 만들기도 한다.
- (3) 돈은 가능성을 가져오기도 하므로 돈을 힘이라고 본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밀막약의 뿌리’(딤후 6:10)라고 말씀한다.
- (4) 돈은 사람의 사회생활을 비인격화시키기도 한다.
- (5)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물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 3. 재물에 대한 성경의 교훈

전도서 7:11에는 돈을 소유할 것을 금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정당하게 사용하느냐에 대해 말씀한다. 잠 30:7-9을 보면 부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했다. 돈이 많아서 모든 것이 편리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커다란 과오를 범하게 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눅 12장 말씀에는 잘못된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 마 4:4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하

신다. 이 말은 떡도 먹고 말씀도 먹어야 되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 6:19에서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마 6:25). 공중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백성들을 안 돌보시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것을 탐내지도 도적질 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것은 분수를 지키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

돈을 바로 사용하면 하늘의 친구를 얻을 수 있다. 눅 16:19 이하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아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마 25:31-45에 보면 재물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나타난다. 헐벗고 굶주리는 자를 돌보지 않고는 올바른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주 계속)

# 호산나대학, 10년의 감사!



이동귀 이사  
(호산나대학 부학장)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서울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빈약한 자의 길동무가 되려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호산나대학과 호산나 대안학교, 방과 후 교실을 개설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05년 11월, 서울교회 설립 14주년을 기념하면서 가진 예배당 헌당식에서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호산나대학 설립을 천명하셨습니다. 호산나대학은 발달 장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우리나라 최초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꿈일 뿐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2009년 10월 10일 경기도 청평에 아가페타운 오픈링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호산나 대학은 2010년 3월 주님 허락하신 사랑의 마을을 꿈꾸며 아가페타운으로 이전했습니다. 호산나 대학은 1만여 평의 부지에 학교본관, 강의동, 기숙

사, 강당, 세미나실, 체육관, 카페 및 전공학과 관련 각종 실습실 등 최신시설을 갖추어서 우리나라 최초, 최고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호산나대학은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자동학과, 서비스학과, 노인케어학과 및 뷰티케어학과 등 총 4개 학과로 이뤄졌고, 1~2년의 인턴십 과정과 교양학부(1년), 전공학부(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산나대학은 전임교수와 강사를 포함한 약 25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온 135명의 학생들이 기숙생활과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저희들도 호산나대학 졸업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84.4%가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고 20% 내외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산나대학 졸업생은 60%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가진 졸업생 등 총 12명의 호산나 졸업생들이 서울에 소재한 7곳의 요양병원에 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

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DIAT, ITQ, 문서실무사 등의 컴퓨터 자격증과 바리스타 자격증 등을 획득하여 서울교회 사무국, 나라기록원, 법무법인 울촌, 일반회사, 학교도서관 등에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세금을 납부하는 당당한 생산적인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 우리 대학 교육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녀들을 호산나대학으로 보낸 부모님께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부모회는 매년 3월 3째 주일 점심 식사와 식당 봉사를 담당하기로 결정했고, 자녀의 변화에 감사하여 아버지가 서울교회에 등록하시고 식당봉사까지 하시면서 ‘부족한 우리 아들이 저를 구원한 효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모습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던 그 언덕...드러난 자 드러나지 않은 자 많은 무리들 속에 하늘 높이 손을 드시고 축사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떠올립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사랑을 아가페타운에서 이미 체험한 우리들은 이제 두려움없이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흥해를 가르고 마른 땅에 발을 내딛듯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름다운 아가페동산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와 함께 홀로 영광 받으소서.



## 장애인을 위한 교육의 장

권한준 성도 (호산나대학 졸업생)

호산나대학 사무자동학과를 졸업한 권한준입니다. 먼저 호산나대학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졸업한 지 꽤 되었지만, 학교 다닐 때 행복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호산나대학 학생들 모두 좋은 추억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주 찾아뵙진 못하지만 목사님, 부학장님, 여러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보살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교회에서 일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부족한 저에게 모두 잘 해주시고 정말 많이 도와주십니다. 또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새로운 경험도 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일하고 받은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도 해드리고, 이렇게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호산나대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서 배운 여러 가지 학습경험들과 활동들로 인해 자신감도 얻게 되고 취업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창립 10주년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호산나대학이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산나대학을 다니는 재학생들도 많이 배우고 졸업해서 직장도 갖고, 저와 같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기회들을 얻길 바랍니다.

학생들도 많이 배우고 졸업해서 직장도 갖고, 저와 같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기회들을 얻길 바랍니다.

선교보고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를 하나님 품 안에

서광중 선교사는 살라티가 시에 위치한 히둡바루 (새 생명)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둡바루 교회의 창립 예배와 부활절 칸타타 준비와 성도들을 위한 예배학 강의 부탁이 들어와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서광중 선교사는 스마랑 시에 위치한 GKI Stadion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과 중·고등부 성가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말랑'에서 처음 문을 열었던 '오마바빠 선교센터'를 저희가 거주하는 '살라티가' 시에 다시 문을 열고 어린이 멤버들이 와서 구원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방과 후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독교인이고 선교사인 것을 아는 주민들이 자녀들을 보내는 것을 꺼리다가 지금은 꺼림없이 그들의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왔다가 이슬람 부모와 이웃들의 방해로 오지 못하게 되면서 현재 회원이 21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 오마바빠 센터의 금요 어린이 성경공부

매주 금요일에는 어린이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어린이들이 현재 참석하고 있는데 이슬람 어린이들은 교실이 아닌 옆 도서관에서 놀면서 성경 공부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간식시간에는 함께 참여합니다.

### 부활절 행사를 하였습니다.



극렬한 이슬람 어린이 5명을 제외한 16명의 어린이들이 부활절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부활절의 의미도 듣고 Egg Hunting도 하였습니다. 계란에는 성경구절을 적어놓고 부활절일에 관련된 성경을 읽게 하고 읽으면 상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여 잘 먹지를 못합니다.

서광중 이성일 선교사는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저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동네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저희를 한 동네의 주민으로 받아들였고 어딜 가든 인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잘 도와줍니다. 파란하늘이도 지난 주에 생일이 지나서 이제 6살(한국 나이 7살)이 되었고 동네 친구들과도 학교 친구들과도 교회 친구들과도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후로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친구들에게도 인기도 좋고 선생님도 잘 따르고 수업도 잘 따라간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말씀 외우는 것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자신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 기도 제목

-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광중 이성일 선교사의 새

로운 사역에 충성과 복종과 겸손함이 있기를 위해서

- 압디엘 교회 음악 신학대학원이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이는 도구가 되도록
- 스타디온 교회와 히둡바루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이슬람 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 저희 가족의 영적인 충만함과 강건함을 위하여, 특히 딸 파란하늘이를 위하여

서광중 선교사 이성일 선교사

## 교구별 체육대회

교구별 체육대회가 4월 23일(토) 양재시민의 숲(축구장)에서 16교구부터 시작된다.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8일(월) 북해폐기 천만인시명운동 송과구 발기인 대회에서 축사를 한다. 19일(화) 백석대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학술대회에서 발제 논문발표를 한다. 23일(토) 제9차종교개혁신학 정기공동학술대회 개최 설교를 한다.

- 특담 : 12교구 이현석 성도 나소정 집사 (7교구 박윤혜 권사 장녀 가정)
- 주일식당봉사 : 마리아 전도회(4.17) 비비 전도회(4.24)
- 금주의 식사 제공 : 김형상 집사 최금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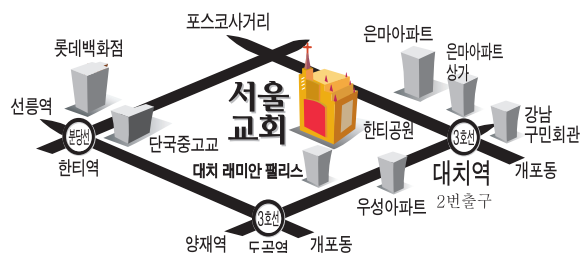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장애인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도록
2. 70인 전도대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3. 4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교구별 체육대회를 통해 각 교구가 하나 되고 다락방 사역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I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